

## TBT 중앙사무국 동정

# 동남아 철강재 기술규제대응 현지활동 수행

기술규제대응과  
02-509-7254

TBT 중앙사무국은 최근 철강재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했거나 강화한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및 태국 3개국을 방문, 현지주재 업계 관계자를 만나 업계애로를 조사하는 한편, 상대국 정부의 담당 공무원을 변담하여 고위급 서한을 통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규제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.

이들 국가들은 수입 쿼터, 덤핑조사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해오던 중 기술규제를 새롭게 도입 강화하고 있다. 인도네시아의 경우 '09.5.6 부터 인니 표준(SNI)의 인증의무화를, 아울러 7.26 부터는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, 말레이시아는 '09.8.1부터 말련표준(MS)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고(8월 초에 '09.10.9로 연기) 태국은 '09.5.1부터 태국규격(TIS) 인증 요건을 강화시켰다. 우리업계의 '08년도 철강재 수출규모는 인니 3억\$, 태국 15.1억\$, 말련 7.4억\$로 총25억\$ 수준이다.

이들 국가들은 기술규제의 도입 목적을 자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자국민의 안전 강화라고 표명하고 있다. 우리기업들은 인증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인증획득을 위하여 인증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시료제출 요구, 인증규정의 세부사항의 미확정에 기인한 중복된 자

료제출 및 인증 지연이라는 애로를 겪고 있다.

우리대표단은 기술규제대응과 이은호 과장을 단장으로 주재국 상무관, 현지 지사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태국과의 협의시에는 외통부 무역규제대응팀 직원도 합류하였다. 8.21일 인도네시아의 산업부와 표준화기관(BSN)과의 논의를 시작으로, 말레이시아(MITI, SIRIM) 및 태국(TISI)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, 과도한 시료제출은 지양하기로 하고 기타 인증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상호 협력기로 합의하였다.



TISI 회의 참석자 [좌로부터 Ms. Rampaipan(TISI 표준 1국장), 손창호 서기관(외통부), 이은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, Hathi TISI 부청장, Mr. Supachai (TISI 국제협력과장), 김용래 상무관]